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3. 1. 1 ~ 2023. 1. 21 제276호

학부모들, '2022 교육과정' 성혁명 내용 모두 삭제하라!

동성애와 청소년 성관계를 조장하는 듯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2월 14일 전체 회의를 통해 성혁명의 상징처럼 사용돼온 '섹슈얼리티'라는 용어를 삭제했다. 아울러 국교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해설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고,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유지했다.

이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킹(교정넷),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수기총(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에스더기도운동 등 1200개 단체는 국교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성혁명·차별금지법 내용들을 담은 많은 용어들이 개정 교육과정안과 기존 교과서들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교위가 수정의결한 교육과정안에서도 다양성 존중, 사회·문화적 성, 성인지(감수성), 성적자

기결정권, 성건강권, 혐오·차별·편견 금지라는 성혁명 구현 용어들은 여전히 총론, 각론에 그대로 광범위하게 남아 있다. 모두 동성애, 성 전환, 조기성애화, 낙태를 정당화하고 반대를 금지시키는 차별금지법 주요 내용들이 포함되는 용어들이다. 국교위는 교육과정안에 여전히 있는 성혁명 용어들을 철저히 삭제시키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교위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성적자기결정권 의미를 성취기준과 그 해설에서 명확히 하기로 한 구체적 내용(성 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할 것)에 대해 의견이 접근(합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표결 직전 교육부 차관이 표결사항을 구두로 정리할 때 소위원회의 합의 내용에서 '성 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할 것'의 내용을 누락해 단독 후 표결이 진행됐다.

그러나 교육부 차관은 수령한 공문에 '성 전환, 조기성

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할 것'이 빠졌으므로 해당 내용이 의결에 없다고 주장,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21일 국교위의 입장을 재확인하게 됐다.

국교위 소위원회는 21일 성적 욕망에 관한 해석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섹슈얼리티 삭제가 성 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한다는 의견을 재확인하고 성평등은 헌법상 양성평등이며, 성적자기결정권은 강요당하지 않을 보호적 의미로만 이해되도록 교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원평, 제양규 교수와 조영길 변호사 등은 입장을 통해 14일 전체회의의 의결 취지가 그대로 유지됐음을 확인했다고 환영하며,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성혁명을 배제하는지 지켜보고, 모든 성혁명 이념세력을 교육계에서 철저히 축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GNPNEWS]



Interview



원정하 선교사(인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세상에 더 많은 사실을 초등학교 때 깨닫고 당황스러웠을 정도로 교회 안에서 성장했다. 또 많은 교회 친구들이 음란물을 봤다는 사실을 깨

달으며 외로움을 느꼈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존재적 절망을 경험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한 걸음씩 순종한 원

정하 선교사가 고백하는 헌신과 순종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60)

복음 가진 자의 삶... 단순하게 살라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단순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우리는 단순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복음 이전과 같이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고, 복잡하게 꼬여있다면 복음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복음을 만나고 영적으로 바뀐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오직 신

랑 맞을 준비를 하는 신부의 삶은 이전에 신랑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의 라이프 스타일과 달라야 합니다. 신부는 신랑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둘 수 없습니다. 오직 신랑만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둘 수 없고 오직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며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유람선을 타고 놀러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탄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항상

전쟁을 준비하고 영전 전시 체제에서 언제든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군사답게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옷, 신발, 머리, 삶의 스타일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즐기고 누리려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아를 충족시키는 사치와 허영으로는, 날마다 꾸미고 바꾸느라 온통 신경 쓰고 마음 정리가 안됩니다. 삶의 자리를 정돈하지 못하면 영적인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병든 자아의 중심이 된 삶의 스케줄, 친구 관계,

빠빠한 일정 등을 그대로 둔 채 거기에 복음으로 사는 것까지 추가한다면 금세 지치고 힘들어 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시간표가 다입니다. 시간표가 안 바뀌고 어떻게 삶이 바뀌었다고 말하겠습니까. 나 중심의 시간표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부터 먼저 짜고, 그리스도의 신부요 군사로서 단순



일러스트=김경선

예수님, 사랑해요!

한 삶은 복음을 더욱 집중하게 합니다.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전화

-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1670-3160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포토뉴스

생명의 빛줄기가 열방에 비추기를



▲ 바다에서 본 일출. © 안호성

새해 첫날 아침, 떠오르는 태양 빛이 물결을 타고 내게로 왔다. 그 빛은 마치 오직 나만을 위한 빛인 양, 물가 어느 방향에서 있어도 나에게만 빛줄기를 뻗는다. 일출의 장엄한 광경 앞에 선 누구나 그렇게 각자에게 다가오는 나만의 빛 한줄기를 맞이하며 송구영신(送舊迎新)을 한다. 보내야 하는 묵었던 지난해에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폭압

통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금도 이어지는 김정은의 도발, 나이지리아 교회를 향한 풀라니족 무슬림의 공격,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미국의 총기난사, 영국의 조력자살 합법화 법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공격 당하는 우간다 성도들의 이야기 등 가슴을 쓸어내리고 비통한 소식들로 가득했다. 그러나 광명한 빛줄기 앞으로 그 묵은해를 보내자. 그리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그 땅을 비추시기를 기도하자. 힘있게 떠오르는 참 빛줄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 열방을 회복시키시길, 새해에는 생명의 참 빛이 그 땅을 강렬히 비추기를 간구하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요 1:9) [GNPNEWS]

美 장로교, 아프리카에 식량 해결 위한 농법 전수

미국장로교(PCA)의 선교 기관인 세계선교부(Mission to the World)가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부족 해결을 위해 농업요법을 전수하고 있다고 미국 기독교매체 월드가 최근 전했다.

세계선교부는 아프리카 대륙의 식량 부족 해결을 위한 콘퍼런스를 "하나님의 길을 경작하기(Farming God's Way)"라는 주제로 5일 동안 개최했다. 라이베리아의 간타에서 얼마 떨어진 100에이커 규모의 농장에서 진행된 이번 콘퍼런스에는 7개 국에서 온 서아프리카인 35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땅에서 두꺼운 덩불을 치우고 채소밭, 옥수수, 벼를 위한 밭을 견본으로 마련했다. 그들은 또한 천연 퇴비를 만드는 법을 배웠고 병뚜껑과 대나무로 급조된 식부 간격(plant spacing) 기계를 만들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폼부자(Pfumvudza)'라는 짐바브웨 농업 기술을 채택했다. 이 기술은 보존 농업 과정을 사용하여 영세 농민들이 수확량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다. 세계선교부는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에 기반을 둔 농업재단(Foundations for Farming) 및 기타 단체들과 힘을 합쳐 관리 교육 및 저축 그룹을 포함해 더욱 전반

적 방법을 통합하는 폼부자 기술을 더 많은 국가에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계속해서 기록적인 가뭄과 식량 부족에 직면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이 협력은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 세계선교부 동아프리카 지역 책임자인 프랭크 신들러는 이 과정이 일부 농부들이 더 작은 땅을 경작하면서 생산량을 4배로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에서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보다 지속 가능한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세계 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약 3억 45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부족에 직면해 있다. 거의 50개 국가, 대부

분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약 49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기근의 위협에 처해 있다. 신들러는 우간다 북부의 한 목사가 식량 부족이 심해져 일부는 굶주림으로 사망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는 관리인 교육을 위해 저축 및 자금 관리 과정에 저축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스토리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했다. 신들러는 "이것이 핵심 요소"라며 "과잉이 그들의 삶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전략적 방법으로 초과분을 관리하면 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출처: Tim Mossholder on Unsplash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쿠바, 경제 절망으로 혁명 이후 최대 '엑소더스'... 25만여 명 탈출

코로나19 팬데믹과 미국의 제재로 쿠바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공산혁명 이후 최대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를 인용, 연합뉴스가 최근 전했다. 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미국으로 탈출한 쿠바인은 전체 인구의 2%가 넘는 25만여 명에 달했다.

빈곤 심화로 고통받으며 먹을 것을 사기 위해 동트기 전부터 줄을 서야 하는 쿠바의 상황을 살펴 주십시오. 변화하지 않는 이 땅의 절망을 피해 다른 나라로 가는 이들을 복음으로 만나 주십시오. 먹고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 쿠바에 부어 주십시오.

민주 콩고 킨샤사, 홍수·산사태로 최소 169명 사망

M23 반군의 학살로 수많은 난민과 사망자가 발생한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 지난달 13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수도 킨샤사에서 최소 169명이 사망했다고 국내 언론들이 외신을 인용, 전했다. 수해가 가장 심한 곳은 수도 서부 몽-응가폴라와 응갈리에마 지구로 수재민은 3만 8000명 정도이다.

총격, 납치, 성폭행 등 반군들의 학살로 황폐한 국토 위에 홍수까지 덮치면서 갈 곳 없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건져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위로하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녀들 폭행, 성폭행 등... 친부·친모 '인면수심' 사건 증가

우리나라에서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바이러스 감염 상태에서 8살 친딸을 수회 성폭행한 30대 친부가 구속되고, 배가 고파 밥을 달라고 칭얼대는 4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최근 친부모들의 '인면수심'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부모 된 본성조차 타락하여 자녀마저 자아 만족의 도구로 사용하고, 때리고 죽이고야 마는 죄인의 본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짐승과 같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죄에 대해 죽고 예수께 대해 살아난 새 생명을 허락하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3년 1월 2일 ~ 2023년 1월 21일

1월 2일 ~ 1월 7일 ▶경기 남양주 / 다윗의열쇠(천**)010-2237-1225, 1.2(05-24시)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1.2~4(13-17시) ▶강원 고성 / 가마골교회(홍**)010-3191-8622, 1.2-7(07-20시)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1.5(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1.6(12시)~7(12시)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1.7(09-21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그 외 12교회 진행중.

1월 9일 ~ 1월 14일 1.10(10-12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1.10-12(14-16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1.10,12~14(20-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1.12(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1.13(10-14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1.13(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1.14(09-18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그 외 7교회 진행중.

1월 16일 ~ 1월 21일 1.16~20(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1.18~19(10-17시) ▶강원 속초 / 동명교회(김**)010-7423-4953, 1.18(20시)~19(20시) ▶경기 파주 / 갈릴리교회(이**)010-3869-3417, 1.19(18시)~21(18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1.20(13-16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1.20(0시)~21(24시) ▶대전 서구 / 광야아들공동체(정**)010-3697-0641, 그 외 11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현장 리포트

복음을 갈망하는 네팔 성도와 목회자 대상 복음캠프 열려

네팔의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전·현지 한국인 네팔 사역자와 현지인 목회자들을 연합의 자리로 이끌어 내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현지 5개 지역에서 복음캠프로 꽃을 피웠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오프라인 모임이 어려워 진리의 말씀에 갈급했던 현지 목회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십자가복음전략(Cross Gospel Tactics, CGT)팀이 진행한 순회 복음캠프는 한 달여 동안 진행됐다.

첫 발걸음은 네팔 최대 규모의 축제인 다사인이 진행되는 가운데 카트만두 성토신학교에서 시작됐다. 이 학교 재학 중인 신학생과 팬데믹 기간에 계속 사용됐던 영상회의 시스템 줌(Zoom) 앞에 총 25명이 모여 3박 4일간 말씀 앞에 섰다.

캠프의 두 번째 모임 장소는 인도 접경 지역에 있는 까까르비파의 ABC교회. 비자 없이도 인도에서 국경을 넘어올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 덕분에 이곳 집회에는 인도와 네팔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51명이 복음캠프에 참석했다. 이 집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시골의 미자립교회 현실에서 불가피한 부업도 내려놓고 먼 거리에서도 달려와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

이어 CGT팀은 동부 국경 근처인

까까르비파에서 나이트버스를 타고 26시간을 달려 서부에 위치한 수르켓으로 향했다. 현지 목회자의 소개로 진행된 캠프는 느헤미야선교센터에서 열렸다. 3~4명의 목회자와 지역 교회 성도들, 총 38명이 참석해 28강의 복음강의에 귀를 기울였다.

그동안 현지교회나 한국에 있는 네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CGT팀은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계층, 많은 인원의 참석으로 크게 격려를 받는 분위기였다. 한국에서 네팔 이주민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뒤, 이들이 근로기간이 끝나 네팔로 돌아간 이후 기존 전통적인 종교로 돌아가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복음 앞에 서며, 진리로 양육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여겨져 왔는데, 이번 순회 복음캠프로 그동안 복음에 갈망해온 현지인들이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집회는 포카라에 위치한 샬롬교회에서 진행됐다. 11월 14일부터 시작된 집회에 25명의 평신도가 참여했다. 이곳 집회가 특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최근 한국에서 이주민 생활을 마치고, 평신도 사역자로 파송을 받아 네팔로 돌아온 한 형제가 고향의 형제자매들 3명을 데리고 참석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집회는 귀국 하루 전 카트만두에 위치한 NKIC대학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 인텐시브

복음 강의로 진행됐다. 5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의 핵심만을 골라 6강의 복음 강의를 통해 복음

의 영광과 능력, 축복을 선포하며 은혜를 누렸다. [GNPNEWS]

이주민 사역의 전초기지, 예승선교센터

예승선교센터는 이주민이 많은 경기도 화성 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이주민 대상 전도를 벌여왔다. 이들이 배포하는 전도지는 총 3종이다. 영어, 네팔, 힌디,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로 동남권 국가 16개 언어로 정리된 다국어 전도지로 노상전도를 진행하고 있다.

이주민들은 한국에 입국한 이후, 대부분 한글을 배우거나 이주민으로서 겪는 각종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나 선교센터를 찾는다. 이주민으로 최대 10년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이들을 위해 선교센터는 제한된 시간 안에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본국으로 귀국한 이후 신앙을 유지하는 경우는 10~20% 수준이다. 나머지는 자신들의 원래 종교로

돌아간다. 따라서 가능하면 이들에게 총체적 복음 앞에 서게 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로 파송을 받아 한 사람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때 네팔 선교사로 사역했던 박성규 선교사(예승선교센터)는 2020년 1월 네팔 이주민들에 대한 복음전파와 양육을 목적으로 진성운 선교사(바란공동체), 강을수 장로, 편해운 목사(처음사랑교회) 등과 함께 CGT팀을 결성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1년에 두 차례 봄·가을에 현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복음집회를 진행해왔다. 2023년부터 CGT는 네팔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복음캠프를 열 계획이다. [GNPNEWS]



▲ 네팔 복음캠프 현장. 제공: 박성규 선교사

미니 인터뷰 Interview

“복음을 듣고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게 은혜예요”



디네쉬 형제

-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셨나요?
“네팔에서 10학년(고1)을 마치고 카트만두에 있는 칼리지(college)를 졸업하고 사진관을 열었는데, 그 건물 2층에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내려와서 차도 마시고 함께 대화도 하면서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당시에는 하나님도, 믿음도 잘 몰랐어요. 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이 다르다고 느꼈을 정도예요.”

- 한국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사진관 벌이가 시원찮았는데, 위층 목사님이 한국에 가 보라고 권하셨어요. 한국에 10년 정도 계시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였어요. 그래서 한국어 시험을 치르고 2011년 2월에 25살의 나이로 입국했어요. 그리고 10년 넘게 한국에서 살았어요.”

- 교회는 계속 다니셨나요?
“명목상 신자였어요. 말씀은 잘 몰랐지만, 그래도 피곤하고 외로운 중에도 교회에 가면 영적으로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다 회사를 바꾸면서 경기도 군포교회 쉼터로 갔고, 이후 세례를 받았어요. 비자 문제로 네팔로 왔다가 두 번째 한국에 갔을 때 예승선교센터를 소개받아 최근까지 복음을 듣고 캠프에 참여했어요.”

- 그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전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좋은 말을 쓰고 바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복

음캠프에 참여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죄에 대한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믿을 때 내가 의롭게 된 것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 깨닫고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한국에서 복음 캠프를 통해 총체적인 복음을 4번 정도 들었어요. 얼마 전 포카라에서 열린 복음집회도 참석했구요.”

- 네팔로 돌아갈 때, 평신도 사역자로 파송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교회 봉사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 추석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연합복음집회에 참여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지막 순서로 평신도 파송식을 하는데 네팔로 돌아가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지난번 고향에 갔을 때 그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교회를 방문했는데, 성도가 15명 정도예요. 청년들 모임에서 ‘십

자가의 도’를 정리해서 복음을 나눠줬어요. 그중 3명과 함께 이번 포카라 집회에 참석했어요. 저는 계속 복음을 전하고 평신도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했어요.”

- 기도제목을 나눠주세요.
“이곳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특별히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실한 크리스천이 되길 기도해주세요. 개인적인 비즈니스

도 계획하고 있어요. 제가 태어난 고향에는 교회가 없지만 신자가 4명 있어요. 30분 정도 가야 교회가 있는데 그곳도 오래돼서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상황이에요. 그 교회 지도자와 함께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세워지고, 고향에도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해주세요.” [GNPNEWS]

E.J



▲ 네팔의 아이들. 제공: 박성규 선교사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부흥을 꿈꾸는 원정하 선교사 (인도)

● 1면에 이어
-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도 뭄바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원정하 선교사입니다. 2012년 봄, 만 29세의 나이로 목사 안수와 선교사 파송을 받고 지금까지 11년째 이 땅을 섬기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 청년 시절에 인도로 가셨군요. 특별히 인도를 선교지로 선택하게 된 배경이 있으신가요?
“먼저 신학교 시절부터 이야기를 해야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신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애타게 기대했던 모습의 캠퍼스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척 실망했어요. 그 덕분에 여러 가지 슬픔으로 걸으면서도 눈물이 똑똑 떨어지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신학교 1학년 첫 학기를 마치자마자, 예수전도단 DTS(제자훈련 학교)를 받으러 인도 델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선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은 있어도 인도 선교사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고자 결심한 계기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었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비슷한 열대의 푸르른 어딘가로 가게 될 줄 알았지요.”

신학교 캠퍼스 생활에 실망, 신앙 훈련 위해 인도행

- 그렇게 해서 먼저 인도를 경험하게 되셨군요.
“인도 생활, 단 6개월 만에 17kg가 저절로 감량될 정도로 고생을 했어요. 그 경험 때문에 다시는 인도에 가고 싶지 않더군요. 바로 다음 해에는 교회 청년부와 함께 말레이시아 단기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는 어릴 적부터 꿈꾸었던 아름다운 정글의 부락 마을들에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제 마음에는 한 가지 부담이 있었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곳으로 가야 하나, 하나님께서 더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나...’ 하는 고민이었지요.”

결국 부르신다면, 그 곳이 제가 싫어하는 곳이어도 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 청년의 순전함이 돋보이는 그런 결정이군요.
“그러던 중 예수전도단 대학사역에서 ‘비전그룹’이라는 모임이 만들어지고, 매년 겨울 한 달씩의 비전그룹 별로 단기선교팀들이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1학년 때 인도를 충분히 보았으니 학년마다 남미, 동유럽, 아프리카를 가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당시만 해도 인도를 6개월이나 다녀온 대학생은 흔치 않았기에 저는 ‘인도 비전그룹’의 강력한 콜링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인도를 굳이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어 인도에서는 약간의 경험치가 있으니 선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순종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주님, 대학생 시절에 여러 나라 구경할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인도 비전그룹에 들어와서 겨울마다 인도만 가겠습니다”

위해 준비 훈련을 많이 받게 하셨네요.
“그렇게 열심히 단기선교를 다니던 2003년의 어느 날 저는 팀원들에게 “만약 내 삶을 통해 10만 명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심지어 인도 선교사로도 헌신할 수 있어!” 라고 나누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인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즈음에는

“
내 삶을 통해
단 한 명만
구원을 받아도
헌신할 수 있는
기도 중
선교사 결단
”



▲ 구호 활동 현장. 제공: 원정하 선교사

다.”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다섯 해 연속으로 한 달씩 예수전도단 인도 단기선교팀을 섬겼고,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여름 방학 등을 통해 다른 나라들도 많이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 주님이 인도 선교사를 만들기

상당한 담대함과 소속감을 느끼며 인도 비전그룹에 충성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기도 속의 10만은 1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고, 1억이 되고, 10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물론 주님 뜻이었겠지만 김종두 화백이 그린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만화 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코 해피엔딩이라 볼 수 없는 그 깊은 고독과 실패의 나날들, 떠나가는 동역자들, 깨어지는 가족들... 그 가운데서도 인도 선교를 놓지 않았던 대선배의 모습은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누리는 낭만과 희열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무겁게 알려주는 듯했습니다. 거기에 윌리엄 캐리 시절부터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아니 사도 도마의 때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났는데도 요원하기 짝이 없는 인도의 복음화. 거기에 내 삶까지 같이 넣어봤자 대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대륙의 거대함. 그런 중에, 내 삶을 통



▲ 인도 현지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원정하 선교사. 제공: 원정하 선교사

해 10만이 아니라 1000명, 100명, 아니 단 한 명만 구원을 받게 되어도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지, 동역자가 없고 내 삶의 마지막 날까지 대부흥을 보지 못하더라도 과연 인도 선교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느 시점에 정체성이 완성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새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미래의 인도 선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 및 신학대학원, 교단의 목사 안수 및 선교사 훈련 코스를 마친 후, 저는 진짜로 인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고등학교 때 거의 모든 교회 친구들이 모여서 포르노 비디오를 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등등... 그런 순간들에 엄청난 외로움을 느끼고, 통곡까지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큐티 잡지 예화에 나오는 아이들처럼 신앙이 좋은 가운데 주변에서 사랑도 받는 매력적인 아이가 되기는커녕, 평범한 우등생도 되지 못하고 친구들을 많이 전도하지도 못하는 제 자신이 싫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신학교에 가면 더이상 외롭지 않고, 또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게 될 거야.’라는 기대를 갖고 버텨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 순서가 바뀐 느낌이 있지만 신학 공부를 하기로 결정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어차피 목회자로 서원했고, 또 선교사로 제 삶을 드렸기에 신학교를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당연한 마음으로 평안하게, 아버지가 나오셨고 언젠가 내 자녀 손자들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며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때가 2001년이었지요.”

- 나실인처럼 성장하셨군요. 선교사로서 사는 삶에 어떤 은혜가 있으신지요.

“지난 11년 간의 은혜의 에피소드를 나누자면 한정이 없지만, 다만 ‘인도’ 사역이 다른 사역들에 비해 특별한 은혜를 받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지로서의 인도의 현 상황 때문입니다. 일단 인도는 세계 9위의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인도보다 박해 순위가 높은 여덟 나라들 - 아프가니스탄, 북한, 소말리아 등 -은 대부분 선교사회나 제대로 된 자국 교단이 구성되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단기선교팀들도 방문하기 힘들구요. 그런 곳들에서 비밀리에, 충성되게 임지를 지키시는 분들은 정말로 존경스러운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인도는 가장 강력한 전장인 것에 비해 나름대로 빈틈이 많은 곳입니다. 한인 선교사회, 현지 교단과 목회자들, 현지 선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삶 통해 인도 선교사 결정

- 모태신앙으로 성장하며 믿음에 의심이나 회의를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국인인 것, 혹은 인간인 것에 대해 의심이나 회의를 가진 적이 없듯, 모태신앙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큰 의심과 회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매년 성경을 일독씩 해 가며 새벽기도를 다니고, 최초의 어린이 큐티 잡지 ‘예수님이 좋아요’를 창간호부터 하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만,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아득함을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알고 보니 교회를 안 다니는 어린이가 나 같은 아이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닌다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성경을 일독도 하지 않았



▲ 인도 현지 어린이들에게 인형극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 제공: 원정하 선교사



선교 통신

“기존 사역자들이 이 땅에서 많이 철수했습니다”

얼마 전 M국 사역자들 전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일 년에 두 번, 이틀간의 짧은 모임이지만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오던 이 모임은, M국 사역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이 땅의 상황을 올려드리고 각종족들과 도시들을 위해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각 나라별, 팀별 상황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들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했습니다. 한 가지 기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새로운 사역자들이 참석자의 반 이상을 차지한 것입니다. 새로운 사역자가 많이 들어온 것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철수하셔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한 명의 사역자가 절실히 필요한 이 땅을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사역자들이 10년, 15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어서,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때에 맺으실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땅의 예배자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오랫동안 이 땅을 섬긴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하여 앞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도 12월 14일이면 만 12년이 지나게 됩니다. 모든 시간이 오직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가정도 믿음으로 끝까지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열매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때에 맺으신다

A라는 아이는 거의 한 달 넘게 찾아와 피부병 치료를 받았습니다. OO지역에서 이곳까지 택시로 1시간이 걸리는 거리인데도 일주일에 며칠씩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아닌 제가 할 수 있는 치료는 고작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발라주는 게 다입니다. 과연 이걸로 치료가 되겠냐는 생각도 들었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A의 무릎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지만, 감사하게도 지금은 거의 치료가 다 되어 A는 한동안 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을 통해 A와 저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

시켜 주셨고 서로를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아이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

프랑스에 있는 친구 B는 지난주 프랑스 정부로부터 여권과 주민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저의 일이 아니어도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난민 신분이라 늘 불안한 삶이었는데, 이제 확실한 신분이 생겨 많은 부분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귀국할 때마다 주변국을 통해 들어오고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M국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가족 방문이 보다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B와 더 깊은 신뢰와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믿음의 발걸음

10일 전부터 두 가정이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원래 수도에서 북쪽으로 꽤 멀리 떨어진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안식년 이후 M국의 수도에 정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 M국 거리의 사람들을 정부가 이주시킨 정착촌의 천막집. 제공: 바나바

몇 개월 동안 집이 구해지지 않아 주님께 다시 걸음을 물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부르셨던 그 도시로 가라는 응답을 받고 12월 말에 다시 북쪽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자가 한 가정밖에 없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그곳에서 복음의 전파자로 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GNPNEWS] M국=바나바·실라

• 4면에 이어

선교 현장은 역동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제공: 원정하 선교사

교단체들, 현지 기독교 학교들, 개인 전도자들, 한국 단기선교팀들 역시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요. 인도보다 선교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적진 내부라면, 인도는 아군의 전선과 적군의 전선이 맞부딪히는 최전선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역동성 가득한’ 사역과 현장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 요즘 선교사 헌신자 수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선교사를 희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조언을 주신다면? “먼저,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

다. 그렇게 결단을 늦추며 슬픈 옛갈림의 초침이 흐르는 만큼, 구원받을 수 있었던 수많은 영혼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가 되시면, 높은 확률로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은 심장이 검에 찔리는 듯한 상처와 아픔들을 통과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을 받으실 것이고 현재의 잃어버린 영혼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와 내

“
하나님은
당신의
결단과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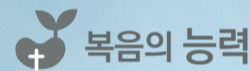
가족의 적성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의 행복을 위해 삶을 던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강력한 초침이네요. 끝으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제가 사역하는 도시 ‘뭄바이’는 인구가 수천만 명에 이르는데, 선교사가 단지 9가정뿐입니다. 게다가 모든 선교사님들의 평균 연세는 60이 넘습니다. 제가 평균 나이를 많이 내렸음에도 그렇습니다.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인도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주님의 군사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인도의 각 언어로 만화 전도책자 및 복음 애니메이션 더빙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순직한, 그리고 꾸준하고 성실한 사역 속에 마침내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피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NPNEWS]

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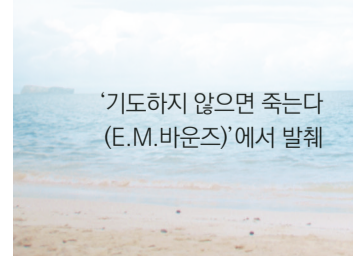


뜨겁고 끈질긴 기도

기도는 뜨거워야 한다. 열리야는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다. 불은 기도가 전진하도록 만들지만, 차가움은 기도를 방해한다. 기도는 불길을 타고 올라간다. 불에서 나오는 열이 기도의 날개이다. 참된 경건은 우리를 불타오르게 만든다. 기도를 잘하려면 철저히 경건해야 한다. 도의 첫째 조건은 그분의 뜻을 실천하기를 갈망하는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는 것이다. 절박하고 끈질겨야 한다. 동일한 것을 반복적으로 구하되 말만 되풀이하는 공허한 반복은 의미없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구하는 것은 단지 구하는 횟수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위함이다. 우리가 끈질기게 간구하는 이유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 죽기 때문이다.

[GNPNEWS]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E.M.바운즈)’에서 발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교회 (5)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1~2)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화려한 도시였고, 깨어있는 도시였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화려하고 대단히 수준 있는 말을 늘어놓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십자가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이다.

왜 십자가 복음이 그토록 능력이 되는가! 무엇 때문에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가! 그것은 십자가가 사람의 내면 중심을 바꾸기 때문이다.

인간은 죄로 오염됐다. 선악과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다. 이런 인

간의 마음 중심을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창조 때의 형상으로 돌이키는 일은 천지개벽보다 더 어렵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의 복음만이 바로 이 일을 가능케 하신다.

십자가 복음만이 내면을 바꾼다

거듭나지 않고 인간이 존재적으로 바뀐다는 말은 불가능하다. 개선된다는 말도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량된 죄인, 개선된 죄인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거듭난 생명이어야 들어갈 수 있다. 인간 존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할 만큼 가능성이 없고 생명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무엇이 거듭나게 할 수 있는가? 천하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거듭나게 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이 때문에 예수 십자가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

가시고 부활하신 지 오십 일 만에 성령님이 오셨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복음 메시지를 받고 십자가 복음을 외치다 기꺼이 죽음을 당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다.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진리를 배운다고 쫓아다니지만, 사람의 눈만 속일 뿐,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아다니기 때문이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안다. 나무가 생명을 속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십자가 복음은 예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죄인된 인간의 존재를 바꾸셔서, 예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십자가 복음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이다. (2018년 7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일러스트=이예민

2023 헤브론 캠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 세대에 그 날의 영광을 소망하는 다음 세대 선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헤브론원형학교는 복음의 진리를 내면화하는 교과과정을 통해 총체적인 복음의 진리 앞에 서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자신이 축복의 통로로 서서, 들은 바 진리를 전파하는 일을 배우고 실천하고자 헤브론 캠프를 개최합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친히 선생님이 되셔서 가르쳐주셨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마음껏 나누고 누리고 싶습니다.
복음에 목마름이 있는 다음세대를 초대합니다.

1. 일정 및 대상
·일시: 2023.2.20(월) 오전 8시 ~ 2023.2.23(목) 오전 11시 / 3박4일 합숙
·장소: 헤브론원형학교
·대상: 1)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 형제, 자매
2)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학생
3) 복음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 공동체와 이 땅의 다음세대를 섬기는 일에 통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학생
·모집인원: 훈련생 약 00명
·회비: 10만원

2. 접수 안내
·접수기간: 2023.1.13(금) ~ 2023.2.4(토)
·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www.theschoolhebron.org
·접수: 온라인으로 접수 (이메일 hebronschool@hanmail.net)
·문의전화: 070-4369-7652
010-2461-1718, 010-5144-9763

3. 주요 프로그램
말씀듣기, 복음스킷, 찬양예배, 기도회, 소그룹 나눔 등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헤브론원형학교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출간

느헤미야527기도정보 세트
선주문시 야긴과보아스
메시지 마스크 증정
*12월 말까지

본책 9,000원 | 긴급기도 5,500원 | 세트 72,000원

*6종으로 구성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는 복음을 주제로 하여, 6가지의 영역을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2023 긴급기도정보

* 최근 열방에서 일어난 긴급한 기도제목을 담은 2023 긴급기도정보 5종이 새롭게 발간됐습니다!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와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1월 초 출간 예정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 www.jakinnboaz.co.kr



통증과의 동행 7년째...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그 날까지

7년 전 어느 날, 머리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다. 거울을 보니 이마에 상처가 보였다. 벌레에 물린 것이라 생각했다. 쉽게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병원에 가보니 잘 모르겠다며 진통제와 연고를 처방해 주었다. 그러나 통증과 환부가 더욱 심해져 피부과에 가보니 대상포진이라고 했다. 머리로 오는 대상포진의 위험성을 얘기해주며 이미 치료할 시기를 놓치고 지나갔다고 했다. 대상포진이 30대의 젊고 건강한 남성에게, 그것도 머리로 오는 경우는 흔치 않고 후유증으로 신경통으로까지 남을 확률은 지극히 드물다며 의사의 소견 끝에 던진 한 마디는 “참 재수가 없는 경우네요.”였다. 이렇게 나의 통증과의 동행은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신 분이다. 모든 것이 그분의 섭리 안에 있음을 지금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통증이 극심할 때는 주님의 계획안에 있다는 것이 오히려 어려움이 될 때가 있다. 고통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시간이 짧게 지나갔더라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결론을 지금보다는 쉽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성을 잃을 만큼 견디기 힘든 매일의 통증과 싸우는 것이 7년째 이어지면서 내 힘으로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더욱 인정하게 된다. 그러기에 더욱 은혜가 돋보인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통증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점수를 매겨 그 정도를 측정한다. 1점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로 지장이 없는 정도이고 10점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최악의 통증이라고 본다. 나는 평소에는 보통 3점 정도의 통증이 머리에 항상 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경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5점에서 6점, 심해지면 10점



일러스트=고은선

의 통증을 견뎌내야 한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신경성 발작으로 머리를 쥐어잡고 쓰러지는 것을 일상에서 봐야 하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그것을 견뎌야 하는 나 자신도 쉽지 않다. 사역을 할 수 없고, 단체의 배려를 받아 이런저런 치료를 시도하던 무렵 주님은 나를 더욱 믿음 한 가운데로 이끌어 가셨다. 혼자 계시던 아버지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았다. 119에 신고를 했다. 아버지는 급성당뇨로 인한 쇼크로 혼수상태에 빠져 계셨고 하루 이상 지난 상태였다. 다리 한쪽은 이미 괴사가 시작되었다. 나는 그 길로 아버지가 계신 응급실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집을 나가신 뒤로 어머니와 이혼을 하셨다. 어머니마저 집을 떠나신 후 나는 친척집들을 전전해야 했다. 어느덧 나는 성인이 되었고 은혜로 복음을 만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 그런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종종 연락을 하던 차 만나게 된 상황이다. 의식이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사의 말과는 달리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며칠 뒤 기적같이 아버지는 깨어났다. 그로부터 나는 7개월간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호했다. 나는 여전한 통증을 견디며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꼬박 돌봐드려야만 했다. 그 기간은 내 영혼이 갈리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불어나는 병원비에 줄지에 빚쟁이가 되어 병원의 독촉을

받아야 했고, 첫째는 3살, 태어난 지 6개월 된 둘째 아이와 함께 아내는 그 시간을 홀로 보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세상에서 죄 짓고 다닐 때는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잘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제 좁은 주의 종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밀어 주시지는 못할망정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아버지는 7개월 후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해져 퇴원을 하셨다. 일주일여 한 번씩 반찬을 갖다 드리고 청소 등 필요한 것들을 돌봐

“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었다
”

드리고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순간, 아내가 목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나는 어린 두 아이를 돌봐야 했다. 이 모든 시간들에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해주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무엇인가는 포기해야만 했을 것이다. 얼마 후 아내는 퇴원했고, 곧이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회복이 되어가는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다. 7개월 동안 아버지와 평생에 없었던 시간을 가지며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했다. 하늘 가족들의 아낌없는 섬김으로 은혜 중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 아내는 무리가 되었는지 다시 입원을 했다.

지금 돌아보면, 까마득한 시간이다. 매일 죽을 것 같은 통증을 견디며 아이들을 돌봤고,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빚 청산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저기 다녀야 했다. 아내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 통원치료를 위해 병원 근처로 숙소를 옮기게 됐다. 혼자 대충 집을 싸고 이사한 다음날 아침, 사고가 발생했다. 둘째 아이의 새끼손가락이 문틈에 끼었다. 절단된 것이다. 119 앰블런스의 도움을 받아 간 대학병원에서 처리가 안돼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계속 우는 아이를 안은 채, 한 손에는 아이의 잘려나간 손가락 봉지를 들고 뛰어서 택시로 다른 병원으로 향했다. 그 병원 수술실에서 아이가 너무 어려 마취를 할 수 없으니 환각제를 투여할 것이라고 했다. 수술대에 묶여 눈만 깜빡거리며 아이를 보니 역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다. ‘나는 이 아이의 새끼손가락 반 마디를 주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해도 절대 못 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나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다. 머리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수술은 잘 끝났다. 평생 손가락 한 마디 없이 살 수도 있었는데, 지금 아이의 손가락은 거의 정상으로 보일 만큼 잘 자랐다.

시간이 흘렀지만 난 여전히 아프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다본다. 믿음의 삶은 나의 결의에 찬 결심이나 노력에 있지 않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

복음의 소리 1670-3160

워크숍
지상중계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 전화(1670-3160)가 진행한 ‘신앙 상담 시에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주제로 열린 상담자 세미나(강사 권서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정신 질환, 100% 영적인 현상 아니다

+ 신앙 상담 시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7)

20세기 초반까지 정신 장애는 비생물학적인 문제로 여겼다.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뇌의 변화를 감별해 낼 의학적인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 장애는 그저 영적인 문제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귀신을 쫓는다며 구타를 하거나 굿을 하거나 감금을 시키는 등 종교적인 방법이 대부분 사용됐다.

정신 질환에 대한 약물 치료가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경부터였다. 몇몇 의학자들이 신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약 중 일부가 정신 질환 증상 호전에도 효과적인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여러 항정신병 약물, 항우울제, 기분 안정제, 항불안제, 정신 자극제, 치매 약물들이 개발되어 왔다.

약이 정신 질환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정신과 약물로 모든 정신 질환을 100%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어떤 질환에 대해서는 약을 2주만 복용해도 ‘인생이 달라졌다.’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정신 질환의 주된 원인이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도 한다. 약물은 균형이 깨진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흔히 기독교인들은 정신적으로 힘들면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 기도하거나 지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기도할 힘조차 없는 경우도 있으며 기도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인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다. 그러나 동시에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켜야 함과 동시에 우리 육체 또한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신 질환의 많은 증상은 뇌 기능의 문제이므로, 신체의 한 부분인 뇌 문제 역시 신체적인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도로 주님의 치유하심을 구함과 동시에 필요한 의학적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 질환을 100% 영적인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 <계속> [GNPNEWS]



주시고 계신 것 같다. 나는 다른 이 들처럼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일 멋진 열매는 없다. 그러나 지금 내게 허락하신 상황에서 복음이면 충분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저런 자에게도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복음이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구나! 이것에 증인으로 삼으셨다고 생각한다. 이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싸움은 주님이 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씨름을 한다. 그러

면 주님이 친히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을 믿는다. 그것이 인내라면 나는 인내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신 33:29)

이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과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열방의 몸 된 교회들이 함께 싸워가는 믿음의 삶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오기까지! [GNPNEWS]

김철우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레오나드 레이븐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하라>

기도의 영적 보일러를 가동하라!



누구라도 이 책을 꼭 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레오나드 레이븐힐(Leonard Ravenhill 1907~1994)의 대부흥시리즈 세 번째 책,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하라'를 펼쳐 들었다.

책에서 그는 지금까지 한 가지 주제에 몰두해왔다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부흥'이다. 지금까지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설

교하고 호소하고 글을 썼지만,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며 더 절박하게, 더욱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가?" 되물으며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방법들이 다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릎 꿇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고, 간절히 기도하든가 아니면 죽든가 둘 중 하나밖에 없다고 선포한다. 레이븐힐은 이 책에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부흥'을 말하며 성령으로 거듭나는 부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흥, 땅을 진동시키는 부흥, 지옥을 텅 텅 비게 만드는 부흥이 교회와 우리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깊이 잠든 교회

교회 건물 확장보다 기도실을 넓히는 교회가 있을까? 그는 깊이 잠든 교회, 이웃의 고통을 망각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교회, 세상의 단맛에 취한 교회들에게 "만왕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싸움은 더욱 격렬해질 것인데, 기도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날카롭게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한다.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존재들은 인본주의나 강신술이 아니라 '죽은 신앙'이다. 우리가 잠을 줄여서 기도할수록 지옥에서 잠을 못 자며 영원을 보내야 할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기도

모든 실패의 뿌리는 기도 부족이다. 골방에서의 기도가 약해지는 것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다. 기도의 골방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는 얼마나 힘찬 기도 생활을 하느냐이다. '기도하는 사람들(praying men)'은 교회에 많지만, '기도의 사람들(men of prayer)'은 거의 없다. 하나님이 많

은 기도들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들이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 기도이거나 개인적 유익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필사적인' 기도에 응답하신다.

지금 영적 전쟁 중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떤가? 주님의 집의 벽들이 허물어져 있다.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넘쳐나고 있다. 우리는 모든 거짓 교훈과 모든 죄악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는 모든 것을 전시 체제로 전환시킨다.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사업가는 회사의 문을 닫을 것이다. 공장들은 전시 물자의 생산을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이다. 국민은 식량 배급 등 모든 불편을 감수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함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적 전쟁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하

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전시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여호와와 편에 설 자가 누구인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대항하여 싸울 기도의 용사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로 세상을 사르시기 전에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죄악의 물결을 저지할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도전하고 있다.

팡팡 얼어붙은 한 겨울에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으면 싸늘한 추위에 온기가 사라지듯이 기도의 영적 보일러를 가동하여 거룩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 부흥의 시작은 언제나 기도였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무도 보는 이 없지만,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매달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GNPNEWS]

정준영 선교사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추우니까 더 따뜻하다

계절이 바뀌어서 오사카 아미미 집에 왔다. 다다미 방, 세월의 흔적을 먹은 짙은 나무기둥, 줄을 당겨 켤 수 있는 전등, 쌓여 있는 우편물이 맞이한다. 오후 늦은 비행기를 탔기에 밤 시간에 도착했다. 기름통에 조금 남은 석유로 차가운 방 공기가 급세 따뜻해졌다. 먹고 싶었던 일본 컵라면 국물로 몸을 녹이기는 충분했다. '집이구나.' 안도감이 임했다. 짧지 않은 몇 달간을 인도하시는 나그네의 여정으로 지냈다. 살림에 굶주린 나는 몇 날을 닭고, 쌀고, 차가운 것에서 따뜻한 것으로 바꾸며 일본을 다시 안고 있다. 온 마음으로 안아야 따뜻하다. 이 땅이 그렇다. 추우니까 더 따뜻하다.

한국 목포 여정 중에 받은 문준경 전도사님 찬양 CD를 차에서 듣노라니 그 은혜로 이 땅이 따뜻하다. '주님 없는 천국은 내가 원치 않아요~ 주님 있는 지옥도 내가 싫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라면 그것으로 충분함이 함께 고백됐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중략)...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막 4:39~40)

바다에 풍랑이 이는 배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두려울까. 하지만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라면 괜찮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도 함께라면 괜찮다. 이 땅에 살면서 두렵다는 마음으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곤 했다.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무섭다고, 왜 가만히 계시냐고 했다.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이 참없다. 풍랑 이는 바다도 주님의 것이거늘.

일본은 지진의 나라이다. 정말이지 일본 전역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그것을 보도하는 것이 일상이다. 그러기에 일본 집들은 온돌문화가 아니다. 전기 온풍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석유 난로를 사용한다. 지진을 대비해서 전기 없이 심지로 켜는 석유 난로가 이 땅에서는 꼭 필요조건이다. 심지에 불을 붙이면 뼈알간 불이 달아오르고 그 위에 물 주전자를 올려놓는다. 주전자에서 피어나는 수증기가 정겹다. 호일에 쓴 고무마가 맛있게 익는다. 더 따뜻하다. 캠핑장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정경은 덤이다.

이 계절이 오면 사무치게 설레이고 두려웠던 때가 생각난다. 토요일에서 오사카로 부르심을 받고 텅 빈 방 난로 앞에 우리 부부가



출처: Marisa Buhr Mizunaka on Unsplash

앉았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 웃음 소리가 들린다. 조선(우리)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다. 고무마가 익는 난로 앞에서 우리 부부는 학교 교문을 열고 들어가는 두려움으로 몇 날을 보내었다. 남편은 여자 혼자 가는 것이 부끄럽고 좋은 것 같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았다. 무슨 용기였을까. 나는 벌떡 일어나 굳게 닫힌 녹슨 철교문을 열고 운동장을 지나 현관의 글귀들을 읽으면서 교무실로 향했다. 아이들을 보러왔다고, 청소를 해도 좋고 밥을 해도 좋고 무슨 일이든 함께 하고 싶다고 그냥 말했다. 이렇게 만났다. 그리고 숨겨져 있는 우리 민족의 한 퍼즐 조각을 찾게 하셨다. 그때 그 입은 용기로 하나님은 내게 우리 민족의 기름부음을 낳는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직 코로나 시대가 끝나지 않았지만 닫혀 있던 이 땅의 문이 열렸

다. 이 땅에는 변함없이 하늘의 만사가 내리고 있다. 새 시대, 새 선교가 시작되고 있다. 3년간 오지 못한 선교의 발길이 우리(조선)학교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걸음걸음은 설레이면서도 두려운 것을 안다. 먼저 걸어왔으니까. 그 두려움은 기쁨으로 띠 띄우실 것을 또한 안다. 이 땅에 오는 마음들을 맞으러 기름통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왔다. 이 땅을 밟는 걸음걸음들이 온 마음으로 이 땅을 따뜻하게 안고 가길 기도한다. 추우니까 더 따뜻한 것을 아는가. 이 땅의 은혜가 그렇다.

바람이 불면 어떠하라, 파도가 친들 어떠하라, 주무시는 주님인들 어떠하라. 주님과 함께 타고 있는 배안이라면 충분하다. 때가 되면 풍랑도 바다도 순종하거늘.

[GNPNEWS]

고정희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2. 12. 1 ~ 12. 20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강종채 고희자 권순호 권혜령 김광희 김선례 김선희 김수미 김숙자 김신애 김원숙 김정희 김형숙 노명희 박경희 박신희 반혜정 변정숙 서영숙 신혜경 안민자 안수경 오세주 유영권 윤미자 이보희 이상연 이영옥 이은주 이정원 이진희 장근혜 정금자 정옥영 조형광 차인순 최근희 최임주 최점옥 홍고집 무명

교회 및 단체

고현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새순교회 샘물교회 서현교회교정팀 썬 양덕원길리교회 열매교회 은강교회 은혜신일교회 주소광교회 참종양터라교회 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